

“내 새끼 살려내”... ‘세월호 법정’ 또 눈물바다

세월호 모형·목포해경 123정 구조 영상 보여

유가족 “당신 자식이 났다면 그랬겠느냐” 분노

세월호 승무원 두번째 공판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이날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실종자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영상을 접하면서부터 흐느끼기 시작했다. 동영상 하나씩 틀어질수록 흐느낌은 더 커졌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은 사고 이후 수 없이 언론에 공개됐던 목포해경·전남도 어업지도선, 단원고 고(故) 박수현 군의 휴대전화 영상이다.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 먹먹해지는 듯, 숨진 아이들 얼굴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듯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숨을 고르

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삼키던 가족들은 영상 속 침몰하는 세월호를 지켜보며 끝내 동료 가족 품에 안겨 고개를 묻고 영영 울었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의 두 번째 공판도 가족들의 흐느낌과 분노 속에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침몰한 세월호를 150분의 1로 축소된 모형을 통한 검찰의 총별 구조와 사고 당시 승무원들 위치, 화물 적재 상황 설명과 침몰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동영상 시청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각종별 구조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고(故) 박수현 군이 머물던 4층 선실에서 통로를 따라 몇 m만 걸어나

오면 출입문이 있어 갑판으로 나와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으로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비판했다. 세월호 대피 방안으로 퇴선시 4층 좌현 갑판에 247명, 우현 갑판에 498명이 대피토록 돼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피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각 선실에서 나와 바로 퇴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세월호 구조 설명에 이어 TV로 비쳐진 동영상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공포에 떨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을 자식들 생각으로 눈가가 붉어졌다.

검찰이 동영상 상영 도중 “어개를 다쳐 승객 구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일부 피고인 주장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고 해경 팔을 잡고 구조되는 장면”,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명뗏목 설치 지점으로 걸어가고 승객이 소

방호사로 구조하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하자 곳곳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다.

가족들은 이날 재판에서 학생들이 모두 조끼를 챙겨입은 뒤인 오전 9시 6분에 “구명동의를 입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특히 목포 해경 123정에서 찍은 당시 구조 영상을 지켜보며 가슴에 묻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듯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금세 재판정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가족들은 발언기회를 요청, “내 새끼 살려내”, “법(지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다”, “왜 선장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꼭 직접 묻고 싶다”며 항의했고 “과연 당신 자식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도 이상한 행동을 했겠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해질 19:50
 일출 16:25 일몰 02:11

“강풍 동반한 집중호우”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5~60mm 비가 오겠다.

광주	비	24/28	보성	비	24/27
목포	비	25/28	순천	비	25/28
여수	비	25/27	영광	비	24/29
나주	비	24/28	진도	비	25/28
완도	비	25/27	전주	비	25/31
구례	비	24/29	군산	비	25/31
강진	비	25/28	남원	비	23/29
해남	비	25/28	흑산도	비	24/26
장성	비	24/28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2.0~3.0	북동	2.0~4.0
남해	남동	2.0~5.0	북동	2.0~5.0
서부	남동	2.0~5.0	북동	2.0~5.0
남부	남동	6.0~9.0	북동	6.0~9.0

◇생활지수

- 식중독: 86
- 운동: 10
-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47	04:32
여수	23:52	16:37
	06:00	00:09
	19:02	12:03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	☁	☁	☁	☁	☁	☁
24/30	22/29	23/29	23/27	23/29	23/30	23/30

‘관계소홀’ 진도VTS 센터장 등 3명 추가 영장

부실한 관제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 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8일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직무유기),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

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하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7일 구조·수색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19대원, 인명구조 훈련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구조대원들이 8일 오전 광주호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는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밤부터 태풍 간접영향권

세월호 희생자 시신 유실 우려 대책 촉구

제 8호 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를 비껴날 것으로 보이지만 위력이 센 탓에 간접 영향 만으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9일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 태풍의 가장 강력한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이며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8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우량은 5~60mm. 기상청은 광주 등 내륙 지방의 경우 순간 풍속이 초속 4~10m, 진도 등 남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14~20m, 남해 만바다에서는 15~30m에 이르는 등 강풍이 예

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든 진도 팽목항은 9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돼 상당 기간 세월호 수색 작전에 차질이 예상된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시신 유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법정부 사고대책본부는 8일 태풍의 영향으로 사고해역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시신이 유실될 것에 대비해 선체의 창문과 임구 등에 자석차단봉과 그물망을 설치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고교생 문·이과 통합하려면 대입제도 대대적 손질 필요”

일선 교사들 주장

2017학년도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적용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대입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교사들에게서 나왔다.

교육부는 2017~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 교과를 모두 이수하도록 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해 2021학년도 수능을 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욱)이 8일 충북 한국교원대에서 연 국가교육과정포럼 2차 토론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관련 “대학 입시제도의 대대적 개편 없이는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경조 부천 계남고 수석교사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고교 국어교육과정 대해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능 국어영역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며 “국어과 학습 내용을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에 맞게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준 성남 창곡중 수석교사는 주제 발표에서 과학 교과에 대해 “1, 2학년까

지 모든 고교생이 공통과정을 필수 이수하게 하고 3학년 때 진로에 적합한 심화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호 전주영생고 수석교사는 영어과목은 “표현기능 위주로 학습법을 바꾸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반영비율을 상황에 절대평가식 수능의 변별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과목에 대해 김재준 서울 경기고 수석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동원한 수행평가나 서울·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수능은 철저히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선다형 지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덕 강원 사내고 수석교사는 수학은 수능을 인문/자연으로 구분하는 대신 진로와 대학수업능력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최준재 서울 무학여고 수석교사는 수능 한국사 시험의 유형과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과정포럼은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올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3차 포럼은 8월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15. 5월 준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관/창/업/중

- 1층 금용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랑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웨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사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빛타워 주민센터
 빛가람동 주민센터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사업지 및 분양사무실
 중앙호수공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